



## 11. 가치관 수립과 시간관리 전략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관리의 중요성</li> <li>▪ 삶의 우선 가치관 수립</li> <li>▪ 체계적인 시간관리 전략</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의 의미와 소중함을 알 수 있다.</li> <li>▪ 가치관의 의미와 내 삶의 우선가치관을 수립할 수 있다.</li> <li>▪ 체계적인 시간관리전략을 알고 활용할 수 있다.</li> </ul>

### <진로지도의 첫 걸음>

가치관 수립과 시간관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시간관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과 시간관리의 모양, 삶의 우선 가치관 수립 전략, 체계적인 시간 관리 전략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시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인데요, 시간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전적으로는 한 시점. 시각과 시각 사이의 어떤 간격, 그 단위라고 말하는데요. 뉴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고 우주와의 인간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은 사건이라고 해서 사건간이라고도 말합니다. 시간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요? 시간은 보통 두 가지 모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형” 똑딱똑딱. 반복적으로 아침이 오고 아침이오고 점심이 오고 저녁이 오고 밤이 오고. 다시 아침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다고 할 때 원형을 이야기 합니다. 하나는 직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직장인.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되돌아 올 수 없는 직선형이 있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적 상상에 의해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우리가 통상적인 시간을 거꾸로 놓는. 이런 것은 영화적인 상상이지만 통상 이렇게 직선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단형”입니다. 직선형으로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생에 중요한 변곡점이 있거든요. 변화의 시점이죠.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독립을 한다든지. 독립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변곡점이 있는데 이 때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더 좋아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현상만 유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똑같이 학교생활을 하는 것 같고,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질의 사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단 형에서 변곡점에서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제대로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

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저도 영화 참 좋아하는데,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한 3000편 정도 봤습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영화 소재 중에 하나가 시간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시공간을 초월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대리 충족시키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련 영화들을 보시면 대체로 상당히 재미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가 제가 2번 정도 봤던 영화인데 재미있더라고요. 헐리웃 액션이라고 해서 재미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옛지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 저는 참 재미있게 봤는데요. 주인공이 수도 없이 죽지 않습니까?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략해와서 공략해나가는데 외계인에게도 피가 몸에 흡수가 되면서 계속해서 하루를 수없이 반복해서 살아가는 영화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낌을 한 문장으로 써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하루가 더 주어진다고 해서 과연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러나 영화 옛지오브 투모로우는 우리 자신이 단 하루만 달라져도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엄청난 일까지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선생님들도 그러시지만, “오늘 하루뿐인데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하루를 바꾸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간을 바꾸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학생들과 한 번 나눠보고,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차게 쓰고 있는지 물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장기적은 목표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시간이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를 향한 단기적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용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꿈이나 비전, 어떤 가치관이나 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큰 목표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단기적인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이 영상을 들으시는 순간도 하나가 될 것이고, 학생을 가르치는 순간도 어떤 한 순간이 될 것이고요. 순간 순간 작은 일상의 행동도 아주 중요한 시간 속에 있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에는 착각과 거짓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바쁘지 않다, 한가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시대가 되어 버렸죠. 물론 우리가 바쁜 것은 괜찮지만 우리가 핑계를 댈 때가 많죠. 마음에 안 드는 이성 이 데이트를 요청하면 가장 많이 대는 핑계가 무엇입니까? 바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실제 바빠서 그러나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시간을 나눠 쓰기 싫다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억지로 데이트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업무 성과라든지, 장기적인 자신의 역량개발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이러면 다들 바쁘다고 합니다. “독서할 시간이 어디 있냐. 업무도 돈도 많이 안주면서 내가 일 이정도 하면 됐지. 자기계발? 자기계발 해야 할 시간이 어디 있어! 과제해야 하지, 학교 다녀야 하지, 집안일도 해야 되고, 쉬어야 되고, 게임도 하고 놀아야 하지.”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자신의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핑계로 바쁘다고 많이 하죠. 물론 조금 여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폭 처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저도 서울 생활 할 때 처음에는 정이 많이 안 들었지만, 서울에 명산이 참 많더라고요. 이제 우리 회사에서 단체로 등산을 가기로 했었거든요. 다들 안 올라가는 겁니다. 회장님 오시면 일진들만 앞으로 팔랑팔랑 하면서 가고요, 이진 가고, 삼진은 가다가 되돌아오는 겁니다. “저 꼭대기 가봐야 볼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조금 있다가 여기 막걸리 집 간다니깐.”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많이 힘드니깐 중도하차를 해서 그렇게 많이 갔었는데요. 제가 입사하면서 중간에서 이제 많이 데려갔었죠. 앞 팀하고 가보니깐 거의 쉬지 않고 가시더라고요. 한 번이나 두 번 쉬고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여성분들은 그렇게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가다 보니깐 나무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쉬엄쉬엄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정상을 간다고 하면은 자꾸 계속 지속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아니라 내가 삶의 정상을 정하고 꾸준히, 천천히 나아가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대한 착각과 거짓말은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게 왜 거짓말이냐고요? 거짓말은 아니죠.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지만 시간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데이트를 떠올리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세요? 막 설레고, 그날 하루가 금방 가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죠? 근데 군대는 어떻습니까? 남자라면 열차레나 별 받을 때.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불과 10분, 20분, 한 시간밖에 안 되도 억척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을 몰입했을 때, 의미 있게 보냈을 때, 의미 없게 보냈을 때, 다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공평한 것 같지만, 실제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 있게 쓰지 못한다면 그 시간은 결국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리를 왜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의미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료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이 몇 백 년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삶의 유한성. 그리고 어떤 일을 한다면 시험이라는 것도 주어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도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요. 항상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극대화해서 의미 있게 활용하느냐. 중요하죠. 세상의 모든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중요한 것이겠죠. 네 번째가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관리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 지 다음 편에서 더 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진로지도의 이해>

가치관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변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격이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나 희망사항이 변했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인생의 변화를 꿈꾼다면 가치관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치관이란 무엇일까요? 가치관이란 어떤 가치에 대한 관점으로 자신이나 타인, 더 나아가 세계나 사상을 바라보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값어치 없는’이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치관에는 ‘값어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무언가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건 그것을 값어치 있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끼는 모든 것들을 가치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자신이 자라온 환경, 습관, 다양한 경험, 교육, 사람들과의 만남, 재능과 관심, 성격과 기질, 열정과 헌신, 라이프스타일 등의 다양한 요소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은 한 개인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삶에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진지하게 탐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삶을 살거나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치관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법칙을 의미하는데, 자신이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찾아내고 그 가치에 우선순위를 정해두면 마음의 평화까지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은 어떻게 수립해야 할까요? 가치관은 이와 같이 다양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슈프랑거는 가치관

의 유형을 권력형, 이론형, 경제형, 심미형, 종교형, 봉사형의 6가지로 구분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의 가치관을 찾기 위해서 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물질적, 정신적, 영적,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 중요한 믿음, 가치, 이루고 싶은 일, 가고 싶은 여행지 등을 1장의 종이에 하나씩만 자유롭게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가치관을 정립했다면, 여러분을 지배하는 가치, 인생에서 가장 우선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위대한 인물들은 자신의 우선 가치를 절대적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면 자유나 인류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내건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자기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는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 행복, 건강, 직업, 지위, 존중,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영적인 평화, 사회적 성취, 경제적 부의 성취 등등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기록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단에 Tip버튼을 클릭하여 다른 사람이 기록한 가치관 샘플을 살펴보고, 스스로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 걸음 더! 꿈Job이 TIP>

이번에는 체계적인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하루 24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도 하루 24시간 어떻게 보내고 있나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깐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하고, 식사하고, 학교나 직장 가고, 티비보고, 전화하고, 메신저하고, 인터넷하고, 잠자고, 학생이라면 과제물하고, 술 먹거나 놀거나 하다 보면 과연 정말 내 미래를 위해서 하루에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피터 드로커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세 가지가 기록, 관리, 통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목표로 하는 일이 있다면 상당한 시간을 활용해야 하고, 그러려면 시간을 기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시간 운영 기록표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복잡하게 안 하셔도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리에 좌측 상단에 '내가 오늘 꼭 해야 할 일'을 적어 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하는 아주 간단한 정도만 표시합니다. 시간을 사건 단위로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학 계획표 쓰듯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아니라, 시간이 딱딱 있다 보니깐 시간을 써 볼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벌칙으로 시간 가계부를 써오라고 직장에서 본부장이나 과장 할 때는 그렇게 내줬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라고요.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3가지가 있는데요. 피터드로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만약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시간 가계부를 쓰고 나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소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할 수 있었던 일. 혹은 비슷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은 어떤 것이 있었나 확인해보고요. 세 번째로 내 시간만 낭비하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일은 삭제하고 없애버려야겠죠. 이렇게 찾아봅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스티븐코비가 쓴 책을 보면 시간 매트릭스라는 것이 나옵니다. 1사분면 즉 중요한 것, 긴급한 것 이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중요하면서 긴급한 것, 요것이죠. 대체로 재난이나 불이 나거나 마감에 쫓기는 프로젝트나 회의나.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하찮은 일들입니다. 바쁘게만 만들고 성과가 없고 시간낭비 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쓸데없는

우편물이나 스팸이나, 강박적으로 티비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로 아주 필요 없는 행동이고 시간 낭비 요소니깐 없애버려야 할 4사분면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갑자기 누군가가 방문하거나,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갑자기 문자가 오거나 갑자기 회의하자고 하거나. 심지어 인기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활동. 이런 것도 사실은 긴급하지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나. 사고가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이 닥칠 수 있을 때, 우리가 막상 졸업을 앞두고 진학을 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좋은 대학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못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준비를 미리미리 해둘 필요가 있거든요. 당장에 긴급하지 않지만 준비를 해둬야죠. 그래서 내 삶에 가치를 찾고 비전을 수립하고 인생을 계획하고 관계를 구축하고. 남이 더 잘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여가를 하더라도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를 위해 적절하게 쉬어주는 것. 이런 것들도 아주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매트릭스를 가지고 학생들이 써보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향아리 실험 많이 들어보셨죠? 물이나, 돌이나, 모래, 자갈. 향아리에 넣으려면 어떤 순서로 넣어야 될까요? 그럴 때 여러분 아시죠? 돌부터 넣고, 자갈 넣고, 모래 넣고, 물을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중요한 것보다도 삶의 밀도.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질적으로 있는 삶. 땡 뚫린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요한 일부터. 삶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인생의 계획표. 삶의 비전을 수립하고 생애를 계획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연간 계획,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을 해야겠죠. 하루를 시작할 때 전 날 밤에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어떤 일을 할 건지를 계획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생애계획을 써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구분해서, 엑셀 같은데다가 써봐도 좋습니다. 수업 중에 한다면 도표를 스스로 만들어서 채워볼 수 있겠죠. 우리 학생들 결혼하는 것부터 여행하는 것, 취업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나이별로 연령별로 써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들. 지났더라도 그 계획대로 월별로 한 번 남은 연도별 계획표를 써보도록 해도 좋습니다. 저는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이어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예쁜 것 이런 것보다도 일일 일지 다이어리를 써보라고 하는데요. 하루에 한 페이지씩 나오는 다이어리 있죠. 이런 다이어리는 조금 두툼할 수도 있긴 한데,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깐 그 안에다가 하루씩 해야지 정확하게 내가 그 날에 무엇을 했는지 기록들이 남거든요. 아주 간단한데요. 이 다이어리에 저는 좌측에는 사회적인 업무, 오른 쪽에는 개인 적인 업무. 이 구분만으로도 매우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월 시작되면 월말이나 월초에 바로 월간 계획을 매월 쓰고, 그 달의 계획표를 써봅니다. 그리고 주간 계획, 주말이나 주초인 월요일 날 바로 자의적인 개인 업무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계획들을 써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것, 개인적인 것. 마찬가지로 전 날 밤에 씁니다. 다 쓰고 공간이 조금 남으면 일기라든지 글감이라든지, 떠오르는 아이디어라든지 배운 것이라든지. 심지어 꿈꿈하다면 지출이나 경비, 만난 사람들까지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시간을 모으는 방법, 이민규 교수님이 쓴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책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사소한 일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은 미루지 않는다. 시간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대체로 사람들이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많이 쓰는데,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NO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이

사람 일, 저 사람 일 다 관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남이 요구하지 않는다 라면 굳이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물건입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어야 하는데, 정리정돈이 안되어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다섯 번째 준비하는데 너무 큰 힘을 뺍니다. 공부하는데 그 때 와서 정리정돈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 때 안 하던 정리 정돈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는 가볍게 정리정돈만 하시고 대청소는 나중에 하시고. 그래서 준비과정정보다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작은 일이라도 언젠간 해야 할 일이라면 짧게라도 즉각적으로 바로 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격려해주신다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